

끼어들기; 재편성하기

우리는 통상 장소특정성을 어떤 공간이 지닌 기존의(established 혹은 pre-existing) 맥락으로 이해한다. 현대 그렇게 되면, 공간이 '갑'이 되기 쉽고, 작품은 자칫 공간에 순응하여 뻘한 것이 되고 말 수 있다. 혹은, 공간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려는 작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보안여관이나 스페이스캔의 오래된 집 같은 공간이 그러한 막강한 갑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장소특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을 통해 쌓여진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그 특정성은 언제고 재편성될 수 있는, 열린 것이다. 다만, 쌓여진 시간이 길수록, 그리하여 그것을 '역사'라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될수록 전폭적인 재편이 쉽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끼어들기의 적절함은 우선 공간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적절함에 달렸다. 작가들이 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집담회를 가졌던 것은 그러한 맥락 이해를 위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참여작가 정승일은 장소를 10번이나 방문하고, 고미술 상설전시실의 유물을 들여다보면서 전시 장소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자체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을 얻기위해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일까. 비록 제목이 너무 축자적이긴 하지만, 정승일의 거울 조형 작품 <아름다운 기술>은 화장품 기술 연구원이라는 공간의 맥락, 그 장소특정성을 작품의 조형 및 의미의 맥락으로 잘 엮어내었다. 3m 높이, 2m 지름의 6각 거울 기둥의 형태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고미술 상설전시실에서 그가 발견한 전통 화장품 그릇[奩]의 형태를 수직으로 키워낸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러한 노력의 흔적보다 훨씬 감탄스러운 부분은 빌려와 키워낸 조형을 변형시키면서 작가가 발생시키는 의미의 층위이다. 이 작품은 외벽과 내벽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는데, 안팎 거울의 설치 양상이 흥미롭다. 작품에 다가가며 먼저 접하게 되는 외벽의 5개 거울은 당연히 정원의 풍광을 되비추게 되는데, 그 뻘한 거울이미지를 작가는 거울의 각도를 조정하여 뻘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 멀리서 보아도 거울에 비친 풍경은 단층처럼 탈구되어 있다. 가까이 다가가며 다섯 면을 훑어나가노라면 그 분절과 파편화의 느낌이 더욱 강화된다. 분명 고개를 돌리면 통일된 하나의 풍경으로 눈에 들어오는 정원의 모습이 거울이미지들을 통해서 통합되지 못하면서 보는 이의 감각을 교란하고 인지를 뒤흔든다. 거울이 그저 되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감각과 인지를 시험하는 장치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한 바퀴를 돌아 작품의 내부로 들어서면 거울은 다각전신거울이 되어, 보는 이의 외양을 다면으로 비추어낸다. 엄청난 나르시시즘의 장치이다. 과학놀이터에서 이미 해보았음직한, 하등 새로운 것 없는 경험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눈은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으로 빨려 들어가,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며 스스로를 살핀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언제나 막강하다. 그리고 그것은 화장이 대변하는 외적 아름다움의 근본 속성이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을 일으키는 거울의 힘이 시지각을 파열시키는 힘과 등을 맞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거울의 경험이 이중적인 것이 되었을 때, 조금은 불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본 것에 대한 도취와 본 것을 수용할 수 없음은 서로 순접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에 불편한 물음표 하나를 남긴다. 이 순간 정승일은 장소특정성이라는 '갑'에 휘둘리지 않았음이, 장소의 맥락을 수용하면서도 내파의 지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기대되었던 것은 대략 그런 것이었다. 주어진 장소의 기존 맥락, 장소특정성 위에 작가 스스로의 해석의 층위를 덧입힐 것. 그리고 그것을 작가 스테이트먼트의 해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화된 작품 형상을 통해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게 할 것. 이 두 작업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게 되는 듯 하다. 아니, 엄밀히는 세 작업이 되겠다. 해석이 물질화되는 과정에는 '구상'이라는 결정적인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니까. 장소특정성의 (재)해석, 구상, 제작.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놓친다면 끼어들기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얻기 힘들 것이다.

- 정수경(서울대학교 미학과 강사, 미술비평가)

APMAP 2015 yongin - researcher's way 글 're-researcher's way: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재탐색의 여정' 중 일부

Interference; Rearrangement

Site-specificity in general is understood in relations to the established or pre-existing context of a given space. In such cases, however, the space is given priority over the artwork, whereby the work will

turn out to be a result of obvious conformity and the effort to proactively rearrange the spatial context completely futile. Spaces with such prevailing character include the likes of Artspace Boan and Space CAN that still bear the traces of an old residential structure.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site-specificity is a concept built over time, the concept of specificity is an open-ended one that could be rearranged anytime. It does get more difficult to have a complete rearrangement if the time becomes long enough that it creates what we call „history“. In sum, the relevance of interference depends on one's relevant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the site. The conference held with the artists and Amorepacific's R&D researchers must have been this attempt at understanding the context. Seung-il Chung, one of the artists in the exhibition, has visited the Yogin site for more than 10 times and examined the traditional art collection in the Amorepacific Museum of Art to get a better picture of the site and the company as a whole. The final outcome of his work proves that his efforts did not go to waste. Despite the literariness of the title, Seung-il Chung's *The Beautiful Technology*, a sculptural work made of mirrors, successfully conveyed the context the site as a cosmetic research center through the formal and conceptual components of his work. The hexagonal column, measuring 3 meters in height and 2 meters in width, is a vertically elongated version of a traditional cosmetic vessel Chung has found in the traditional art gallery of the museum. More impressive than the evident effort paid are the additional layers of meaning Chung has managed to create while engaging in the process of appropriating and transforming the original model. The mirrors covering the inside and outside are installed in an interesting manner. What the viewer first experiences are the five mirrors on the exterior of the structure, which reflects the scenic nature surrounding the work in a very unexpected manner as a result of the shifting angles in the mirrors. Even when seen from a distance, the reflection on the mirror distorted as if a dislocated strata. A close walk towards the five facades only crystallizes the sense of disjunction and fragmentation. The viewer's sense and perception are disturbed, as the uniform view we see upon turning the head around to the garden turns fragmentary in the mirror image. Here, mirror is not a mere tool for capturing a reflection but a device that experiments with our senses and perception and thereby possesses the power to challenge our stereotypes. Upon making the round and entering the interior of the work, the full-length mirrors reflect the viewer's appearance from various angles. This superb device of narcissism is nothing new from what we have experienced at science centers. Yet even before realizing, our eyes are drawn to our reflections, compelling us to make turns and examine the self. Narcissism, at all times, is powerful—And such essential nature of physical beauty is what the world of cosmetics speaks for. However, a slight sense of discomfort strikes when this narcissism-provoking mirror is put back to back with another that destroys the visual perception so that the two are paired to create a double experience. A fascination for the seen and the unacceptability of the seen are left unmatched raising a discomforting question. At this moment, like a flash of lightning, the viewer realizes that the artist has not succumbed to the authority of the site-specificity and that he has incorporated the context of the site while managing to secure a point of disruption.

What I had expected was loosely what I have just mentioned—to add an additional layer of interpretation on top of the existing context of the site and site-specificity and to have this interpretation „sensed“ and „preceived“ through a materialized art form, not through the artist statement. An artist's competence could be measured through these two aspects. Strictly speaking, it would be three aspects, since we must include the decisive process of „conception“ that takes place while the interpretation is getting materialized. If one misses any of the following three—(re)interpretation of the site-specificity, conception, and production—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get the evaluation that the interference was relevant.

- Sukyung Chung(Lecturer, Department of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Critic)
APMAP 2015 yongin - researcher's way, A part of the text 're-searcher's way: an ongoing journey of re-search of beauty'